

보도자료

# 맥쿼리인프라펀드,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 인수 계약 체결



## 친환경 산업용 가스 공급 및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로 신성장 추구 계획

(2021년 6월 15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MKIF")는 15일 MKIF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주)해양에너지 (이하 해양에너지) 및 (주)서라벌도시가스(이하 서라벌가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1982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 현재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화순군을 포함한 8개 전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서라벌가스는 2000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경북 경주시, 영천시에 공급하고 있다.

양사의 지분 인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거래대금은 총 7,980 억원이며, 인수 절차는 2021년 7월 중에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KIF는 해양에너지와 서라벌가스의 경영전략으로 기존 가정용 도시가스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산업용 천연가스 공급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MKIF는 해양에너지와 서라벌가스를 통해,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미(未) 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성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말 기준 해양에너지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광역시 100%, 전남도 공급 권역은 약 33% 수준이다. 서라벌가스의 경북도내 공급 권역의 보급률도 약 71% 수준이어서, 두 회사 모두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남도, 경북도 내의 추가적인 보급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MKIF는 또한 양사의 산업용 천연가스 시장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산업, 수송,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低)탄소 연료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Fuel Cell)를 발전용 및 가정/건물용으로 2018년 총 0.3GW(기가 와트)에서 2040년 총 17.1GW까지 보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연료 전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양사의 산업용 천연가스 공급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고 해당 지역의 고용 확대와 같은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MKIF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의 대표적 상장 펀드이다. 펀드내 다른 민자사업 프로젝트와 달리 도시가스 사업은 영속적 기업을 통해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기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의 서범식 대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장기적,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MKIF 운용 전략에 부합한다”며 “기존의 가스 공급 이외에 산업용 가스 공급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확대를 통해 고객과 투자기업 임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KIF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 경영, 안전사고 예방, 지역 사회와의 상생 등의 목표를 통해 지속 가능성과 투자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ESG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법적 기준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장학금 지급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 투자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추가문의

김선미 부문장 (한국맥쿼리 홍보담당)

직통: (02) 3705 8582 / 휴대폰: 010 7610 4020

[sunmi.kim@macquarie.com](mailto:sunmi.kim@macquarie.com)

박진욱 전무 (맥쿼리자산운용)

직통: (02) 3705 8516 / 휴대폰: 010 4102 0448

###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 (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는 2002년 12월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인프라펀드를 설립하고 2006년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서 국내투자자 비중이 85%, 투자자 수는 8만여명이며 시가총액은 4.6조원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상장인프라펀드로 발전하였다.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는 일반펀드와는 달리 별도의 펀드 만기를 두지 않은 상장펀드로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며 실제 2002년 펀드 설립이후 투자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장기 보유하면서 연금 성격의 배당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펀드 만기가 있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펀드와는 많이 다른 점이다.

### 맥쿼리자산운용(Macquarie Asset Management)

맥쿼리자산운용(MAM)은 맥쿼리그룹의 자산운용부문이다. MAM은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부동산, 농업, 운송금융, 개인신용, 주식, 채권, 멀티에셋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클래스의 투자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통합자산운용사이다. MAM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미화 4,240억 달러(한화 약 470조 6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맥쿼리그룹은 채권, 주식 및 상품 부문에 걸쳐 고객들에게 자산운용 및 파이낸스, बैं킹, 자문, 리스크 및 자본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각화된 금융그룹이다. 1969년에 설립된 맥쿼리그룹에는 16,4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